

제목: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21절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그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에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장소를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1. 높은데 두지 말라고 합니다. (17절)
2. 선한 사업에 마음으로 두라고 합니다. (18절)
3.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데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21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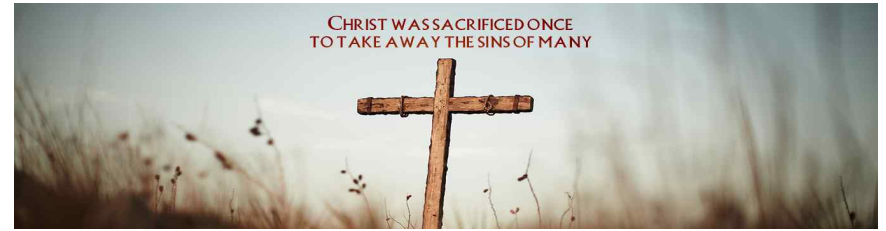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21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Timothy 6: 17-21 신약 342 페이지 Presider
- 말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335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의미 있는 죽음)

러시아 대통령을 배반했다고 보도가 나왔던 바그너 그룹 용병 리더 대장이 비행기 참사로 며칠 전에 죽었다. 미국의 대통령은 2달 전 크렘린 궁으로 행해서 싸우러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 벨라루스로 망명하고 있던 그에게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도 했다. 그들이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비행기 참사로 모스크바에서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아니라 러시아 대통령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었다. 그런데 죽은 그 사람만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한 나라를 위해서 또한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에 그의 삶에서 남는 것은 싸우다가 죽은 일이 되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말이 정확하게 맞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의 죽음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잊히고 말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일하며 대가를 받고 기뻐하는 삶을 선물로 주시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끝난다고 한다면 의미는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임으로 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하여도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며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을 정리 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주위에 너무나 의미 없는 죽음을 많이 본다.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부여 주셔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라고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라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천국의 과정이고 준비이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헛되지 않다. 고난이 있고 절망과 행복의 사이를 많이 오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오히려 죽음으로 더욱 빛이 나고 생명을 얻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신다. 잘 산다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은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언덕에 언덕이 겹치는 삶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인생은 굴곡이 많을 수도 있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엄청난 만족과 행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나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돌아보게 한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자. 언제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가자. 천국 문에 이르도록.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 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집사님과 최운서 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김은경 선교사님의 건강 (폐렴)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운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중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9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예배

돌아오는 주일 **9월 3일(주)**은 **온라인으로 예배** 합니다. 긴 주말(Long Weekend) 이지만 어디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담임목사 동정

동부 뉴저지 여행 9월 1-5일

7. 9월 행사

목자 훈련	9월 17일(주) 친교 후	예배당
목장 모임	9월 24일 주중	각 목장에서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